

“쪽박 도널드” vs “부패한 조”...美대선 진흙탕 싸움 양상

상대에 대한 멸칭 주고받기 등 조롱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후끈

“쪽박 도널드(Broke Don)”, “부패한 조(Crooked Joe)”. 상대에 대한 이 같은 멸칭이 단적으로 말해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된 올해 미국 대선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지난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쪽박 트럼프는 지하실에 있다”며 트럼프 이름 앞에 ‘파산하다’는 의미의 ‘broke’를 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과 음모 이론가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와 관련 민사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터에 트럼프 캠프의 모금 실적이 바이든 캠프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다.

이달 초 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를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 것이기도 했다.

“쪽박 도널드”라는 표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사용했던 ‘부패한 조’에 상응하는 멸칭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헨터 바이든의 비위 의혹과 바이든 대통령을 연결하며 지난해 4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부정직함’, ‘부패한’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crooked’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헨터 바이든이 부친의 부통령 재임 기간(2009-2017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있자 바

이든 대통령을 권력형 비리의 배후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조’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미국 유권자 과반이 고령(바이든 81세·트럼프 77세)의 전직 대통령간 재대결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면서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5일 ‘슈퍼 화요일’(16개주 동시 경선)을 거치며 양자대결로 판이 짜여진 뒤부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난타전 양상은 본격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서아체 앞바다에서 전복된 목선위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근해 로힝야 난민선 침몰... 70여명 사망·실종

“사고 목선 선장·선원 등 4명, 침몰 시작되자 도주” 주장도

최근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전복돼 침몰한 로힝야족 난민선에 타고 있던 이들 가운데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아체주 서부 앞바다에서 전복된 목선에 당초 승선한 난민은 15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고 목선이 발견된 이후 75명이 구조됐다. 생존자는 남성 44명, 여성 22명, 어린이 9명으로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부분은 아체주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AP통신은 사고 선박의 선장과 선원 4명 가량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달아났다는 생존자 2명의 증언을 전했다. 다만 이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사고 목선은 지난 9일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으로 오래 전부터 탄압 받았으며, 현재 70만명 이상이 국경 인근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촌 생활도 열악해 상대적으로 바다가 잔잔한 10-4월 많은 난민이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나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향하고자 남은 목선에 오른다. /연합뉴스

日記시다 지지율 ‘퇴진위기’ 20% 중반대 여전

“자민당 비자금 윤리위 설명” 부정 평가 80% 넘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잇따라 나왔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2-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200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 조사보다 1%p포인트(p) 오른 25%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같은 기간 925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조사보다 1%p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8%였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10-20%대에 머물렀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2022년 재집권 이후 최저인 23%를 기록했고, 닛케이 조사에서는 재집권 이후 최저였던 전달보다 3%p 오른 28%였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대응에 불만이 강하다”고 짚었고, 닛케이는 “정치자금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두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비

자금 스캔들’ 문제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설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견해는 모두 80%를 넘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사과했고 자민당 최대 파벌 ‘야베파’ 중진들도 심사회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발언했지만,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해 오히려 비판을 초래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민당 차기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2%로 1위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5%로 2위였고, 가미카와 요코 의무상이 9%를 기록해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1%p 차이로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기시다 총리는 7%로 5위였다. /연합뉴스

모스크바 총격·방화 테러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방화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

러시아연방보안국 조사위원회는 이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

상, 탄창 28개가 나왔다.

조사위는 지난 23일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3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상자 수는 200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더 늘어난 셈이다.

부상자 수는 18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사상자를 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관련된 총 11명을 전날 검거했다. 이날 테러 용의자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조사위 본부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조직원이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Rela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 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금호빌드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